

일부 여대생의 성 실태 및 성교육 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이 혜 숙**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양식과 의식구조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전통문화, 규범 그리고 인간성의 본성은 물론 가치관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한 조사에 의하면 미혼모의 대부분이 3-4 개월이 넘어서도 임신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 할 수 없이 아기를 낳는 사례가 많으며 미혼모의 평균 연령이 20세로 90년도의 22세 보다 연소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미혼부의 연령은 24세로 나타나 있다(병원신문, 1993).

또한 보건사회부(1991)의 조사에 의하면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여성의 1/3이 미혼여성으로 이 중 25세 이하가 85%, 두 번 이상 수술을 받은 사람은 5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들의 연령이 대학 재학 연령임을 고려하여 볼 때 대학생들의 이성애 태도, 성에 대한 고민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성에 대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시기에 올바른 성 지식을 갖도록 하여 무지에서 오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대학은 사회교육을 제외하면 피교육자의 입장에서

볼 때 최종 교육기관이다. 초, 중, 고등학교 과정과는 달리 대학생들은 자기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써클 활동을 통해 폭 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연령상 청소년기 말기 및 성인기 초기에 해당되므로 이성과의 교제는 결혼을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윤가현, 1994). 따라서 이 시기에는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그들의 이성애에 대한 관계에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부족한 성 지식이나 태도로 인하여 올 수 있는 불행이나 원하지 않는 일들은 사정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성교육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오랜 동안 유교 문화권에 있어 왔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성 윤리관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성교육 실시여부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인식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성교육은 피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성교육 실시에도 또한 동의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어서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단지 인체의 구조에 대한 지식 전달 정도로만 그치고 있으며 발달 단계에 알맞는 성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한국의 부모나 교사는 청소년들이 성행위를 알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성행위를 못하도록 막거나 순결교육을 권장하고 있다(최수일, 1996; 이철형, 1998). 이에 비해 유럽은 청소년의 성

* 본 연구는 경인여자 대학 연구비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경인여자대 간호학과 조교수

행동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십대 임신을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대처하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 혼전 성 경험율은 비슷하지만 십대 미혼모 발생률이 현저히 적다고 보고되었다(정진경, 1992).

청소년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성숙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의 독립, 성적인 성숙에 대한 적응, 동조적인 관계를 벗어나 친구들간의 협동적인 관계를 이룩해야 하며, 이성간의 관계도 정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은 나름대로의 생활철학 및 정체감 확립을 서서히 이룩하게 된다(Cogner, 1977).

따라서 본 연구자는 우리 나라 여대생들의 성에 대한 인지도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일개 여자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 성교육 요구의 실태를 조사하고 일반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대학교육에서의 성교육 계획에 도움이 되고자 함이다.

2. 연구목적

일 여자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태도, 지식, 경험 및 성교육 요구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성에 대한 태도, 지식, 경험을 조사한다.
- 2) 대상자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의 관계를 규명하여 성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한다.

3. 용어 정의

1) 성 지식

성의 생물학적, 사회심리학적 측면에 관한 내용으로 생식생리, 성병, 피임, 성 생리에 관한 지식을 뜻하며 18개 문항 총합의 점수가 높으면 성 지식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점수가 낮으면 성 지식이 낮은 것으로 보았다.

2) 성 태도

성행위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혼전 임신의 책임, 결혼 전과 후의 유산, 남성의 혼전 성교, 여성의 혼전 성교, 남성의 혼외 성교, 여성의 혼외 성교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말하며 7개 문항 합점수가 높으면 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인 것으로 보았고 점수가 낮으면 보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3) 성 경험

성행위와 관련된 경험으로 자위행위, 성교, 피임, 성병, 임신, 유산, 강간에 관한 경험을 말한다.

4) 성교육 요구

대학에서의 성교육 필요여부, 성교육 실시 방법에 관한 4개 문항과 성 지식에 대한 요구로써 성 심리, 성 윤리, 생식생리, 성 생리, 성병, 피임, 성 행동, 사랑의 의미, 결혼의 의미, 등 19개 항목에 대한 요구 빈도를 말한다.

4. 연구의 제한점

일 여자대학의 여대생들에 국한하여 조사한 것임으로 연구의 일반화와 확대. 적용에 제한점을 갖는다.

II. 문헌 고찰

1. 성에 대한 지식

성이라는 글자가 지니는 원래의 의미는 마음(心)과 몸(生)의 양면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Ford, 1980). 성(Sex)이란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라틴어의 “섹서스(sexus)”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자른다” 또는 “나눈다”는 세코(seco, cut)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다. 우리에게서 섹스(sex)와 젠더(gender)라는 단어들만 단순히 성이라고 번역되고 있다.

안재정(1983)에 의하면 “성이란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성에 대한 욕구가 없었다면 인류사회는 발전, 유지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성은 금기, 경멸, 수치로 취급되기보다는 오히려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다. 성이란 시간(역사)과 공간(민족)에 따라서, 혹은 그 사회 환경과 성별에 의해서 그 인식과 개념, 그리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다. 성이란 사람과 사물의 본 바탕인 만유의 본질 중 하나로서 남성, 여성, 중성, 동성 등 생리적 구분의 의미만이 아니라 천성, 기질 등 내면적 심리상태까지 포함해서 의미한다”고 했다. 인간은 출생부터 모든 동물과 같이 남·녀로 구분된 성적 존재로 태어난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는 동물과는 달리 성차이에 따른 명확한 역할 구분이 되고 있다. 동물의 경우 성 역할이 구분되는 점은 세대계승을 위한 생식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동물은 일정한 발정기에만 생식을 위한 성행위가 가능하다. 즉, 성적 존재로서의 행위적

특성은 특정한 시기에만 의미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에는 동물과는 달리 생물학적인 성 차 이외에 성 특성의 의미가 증시되며 남녀간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성 역할이 구분되는데 성 역할의 주체자는 자신의 내적인 성 정체감에 따라 외적인 행위를 달리 하게 된다(Goldman, 1982).

성에 대한 일반적 지식은 생식기 생리, 성 행동, 수정, 임신, 자위, 성병, 피임에 관한 성 지식을 대학생에게 조사한 결과 남학생은 수정, 임신, 피임, 순결, 성병에 관한 지식이, 여학생은 생식기 생리, 수정, 성행동, 자위, 성병, 피임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은자, 1979), 성영자와 정연강(1984)에 의하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이성의 성징(월경, 초경)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다.

2. 성에 대한 태도

인간의 본능 중에 식욕 다음으로 강한 본능은 성욕이라는 말이 있다(Caprio, 1952).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연적인 현상으로 성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대뇌의 피질과 수질의 작용으로, 대뇌 피질이 성욕을 일으켜 흥분하게 만들고 쾌감, 만족감을 받아들이는 작용을 하면 대뇌 수질은 피질에서의 여러 가지 본능을 알맞게 조절해 줌으로써 사람에게 성욕이 본능이라 해도 때와 장소, 대상을 가려 자제할 수 있게 해준다(Marie, 1972). 특히 청년기에는 여러 가지 욕구가 갑자기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들은 동시에 감정적으로 강렬해지고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많으며 신체적·정신적인 커다란 변화에 수반하여 생리적으로는 성욕이나 활동욕, 사회적으로는 애정·우월·독립해 보려는 욕구 등이 현저하게 나타난다(장병림, 1980). 성적 동기는 심리적인 현상으로서 호르몬이나 내적 작용의 형태이기보다는 문화적 학습에 더 많이 의존하며(임능민 역, 1973; 정동철, 1978) 개인 혼자만의 경우에는 의미가 없는 사회적 욕구로서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하였다(장순복등, 1992).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성이란 부정적인 것이기보다는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사춘기에 형성된 성 태도가 일생 동안의 성 태도를 좌우하며 사춘기의 성 태도는 어린 시절의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고 성 지식을 얻는 시기와 범위, 영향을 준 사람의 태도에 따라 좌우된다(윤가현, 1994).

기존 연구에서 결혼 전 성 관계, 동거 및 순결과 같

은 성에 대한 태도가 보수적일수록 성 관계가 적고, 고민이 적었다(박영신, 1988). 여자 대학생은 혼전 순결에 대해서 79.6%가 반드시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한 것으로 반해 남자 대학생은 혼전 순결에 대해 40.9%만이 반드시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강현숙, 1978). 남학생의 대다수가 여학생에 비해 성행위를 자연스럽게 보았고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사랑이 없이도 성행위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순결에 대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육체적 순결을 순결로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김은자, 1979). 또한 성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성행위나 성에 대한 언급을 하여도 수치감이나 죄의식을 덜 느끼며 일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성에 대한 지식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이인규, 1984; 윤가현, 1994). 성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 성별, 주거상태, 종교, 인종등이었다(김은자, 1979; Larossa, 1988; 박영신, 1988; Coleman-Kenney, 1992; 김주연, 1993).

3. 성에 대한 경험

성 경험에 있어서 성교 경험은 학년, 연령, 성별, 부모 생존 여부, 주거형태, 어머니의 교육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성교 경험이 많았고 성별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성교 경험이 훨씬 많았다(김은자, 1979; 박영신, 1988). 부모 생존 여부에 따라서는 결혼 가정의 학생에게서 성교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형태에 있어서는 자취나 하숙을 하고 있는 학생이, 지역별로는 도시 학생보다는 농촌 학생에게서 성교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교를 하게 된 동기를 보면 편부나 편모인 학생이 욕구불만 해소를 위해 성 관계를 갖는 경우가 더 많았다(윤귀임, 1982; 박영신, 1988).

미국의 경우 최초의 성교 경험 연령은 9세에서 18세로 평균 12.9세로 나타났으며(Moody, 1990), 우리나라의 경우는 성교를 경험한 남학생의 88.8%가 15~19세에, 여학생의 46.6%가 15세 미만에서 첫 성교 경험을 했다(김주연, 1993). 성교 대상에 있어서 어린 시절 연상의 여성과 성 경험을 한 남자 대학생은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삶에 있어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경험이 그들 생활에 있어 대인관계와 성적 적응에 영향을 주었다(Fishma, 1990). 자위행

위의 경우 12~21세 청소년중 남학생이 49.5%, 여학생의 21.5%가 자위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수일, 1978), 또 다른 연구에서는 1,263명의 청소년 중 2%가 16세 이전에 자위행위를 경험했으며, 최초의 자위행위 경험시 평균 연령은 남자가 15세, 여자가 15.3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위행위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자위 경험이 더 많고 더 일찍 시작하였다. 가정경제 상태에 따라서는 생활이 어려울수록 자위행위 경험이 많았다(변희재, 1977; 이수일, 1978; 성영자, 정연강; 1984; 김주연, 1993). 그러나 성행동이 금지되고 여권이 안된 상태에서의 자위행위는 성욕과 긴장을 일시적으로 발산하는 수단으로서 육체적인 위안을 줄 뿐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지는 못한다고 하였다(이광자, 1990). 임신 경험은 성별과 종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임신 관련 경험이 더 많았으며(김은자, 1979; 박영신, 1988), 기독교를 믿는 학생의 경우 다른 종교를 믿는 학생에 비해 임신 경험이 낮았다(이수일, 1978). 피임 방법을 사용한 이유와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한 결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임신을 원하지 않아서, 학업을 중단하지 않기 위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등으로 나타났고 피임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서는 임신이 되리라는 기대를 못했으므로, 성경험을 하게 되리라는 예상을 못했으므로, 피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등으로 나타났다(Anema, 1987). 피임법의 사용은 피임방법에 대한 인지된 접근가능성, 연령, 종교, 피임법에 대한 지식, 교육, 사회경제적 수준과 관련이 있었다(Jackson, 1990).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은 서로간에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 각각은 어떤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개개인의 특성과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4. 성교육

성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생식에 관계되는 생리적 지식과 본능에 대한 깊은 이해,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판단으로 인간성장에 도움을 주어 개인의 사회적 완숙을 이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에 있다. 또한 넓은 의미에서의 성교육은 성품과 개성, 감정과 정서 발달과정을 이해하는 교육, 여성은 남성을 이해하고 남성은 여성을 이해하는 교육, 또는 올바른 배우자 선택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이다

(전정자, 1976; 강현숙, 1989).

미국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성교육을 1900년경부터 실시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미국의 성교육 철학은 성의 위험성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40년경에 들어와서는 성교육의 초점이 변하여 가정생활이나 종족의 번식, 위생, 도덕성 등을 강조하였으며, 성적인 적응이야말로 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입장에서 성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1964년에는 성과학(sexology)으로서의 성교육이 일반인에게도 소개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부모들이나 학교의 교사들이 성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1960년대 초부터 미국의 의사들도 환자들에게 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현재 미국 내의 의과대학들이 80% 내지 90% 이상이 성교육 강좌를 마련해 놓고 있다. 미국내의 225개의 일반대학 중에서 40% 이상이 성에 대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윤가현, 1994), 성교육의 최선진국인 스웨덴에서는 1933년 중학교에서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였고 1955년에는 전국적으로 성교육을 의무교육화 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으로 각 지역에 성 상담소를 두어 성 문제 상담, 피임, 출산 지도에 도움을 주고 있다.

건전한 성생활은 성교육을 통해 알고 있는 성 지식과 관련이 있으며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늦어도 중학교 2학년부부터는 정규과정으로서 예정된 교재에 의하여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강현숙(1978)과 김영숙(1981), 이인숙(1994)등의 대학생들 대상으로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필요하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성교육 실시 시작 시기로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가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성별에 따른 성교육 경험 빈도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성교육의 기회가 매우 낮은 상태이므로 남학생에게도 성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박영신, 1988).

Caprio(1952)는 정신과 육체에 중요한 건강 요인은 자신의 성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 건강한 성생활을 어떻게 성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며 성 행동에 관한 무지는 인간에게 정신뿐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교 교육의 정규 과정으로서 성 위생이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의과대학생과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5일간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성교육의 효과를 측정해 본 결과 지식은 모두 증가했으며 태도가 지식보다 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에 대한 태도가 올바른 성에 대한 정보에 기인한다고 하였으며 교과 과정에서 성을 다루어야 한

다고 하였다(Mims, Brown, Lubow, 1976). Grum (1991)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 정보와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를 취급하는 체계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성적 죄의식, 그리고 부정적인 성적 태도와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었으며 역시 성 지식, 성 가치관에 대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성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성교육 과정이 성에 대한 지식 축적을 위해 효과적이고 태도 변화가 즉시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앞으로 일어날 것이며 학생들의 성행위는 자신의 정서적, 사회적, 성적 요구에 의해 크게 영향받게 되므로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태도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Douglas, 1980; Adrian, 1990; Schwartz, 1991; 이성희, 1982). 부모에게서나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성교육을 받지 못했던 여성들보다 부지중의 임신율이 낮았다(Zelnik, Kim, 1982). 1980년대 미국에서는 학교에서의 성교육 방법과 성교육 내용에 대한 평가 연구가 Kirby 박사에 의해 시행되었고 성교육에 특별히 출산 조절, 유산, 피임 방법의 개념이 삽입되었다(김소야자, 1987). 하지만 국내에서는 유교적인 오랜 사상과 인습이 고정관념으로 말미암아 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 성교육 역시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 편중되어 있는 상태이다(이성희, 1992). 그러므로 대학에서의 성교육은 추상적인 개념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대학생이 연령에서 요구되는 성 지식과 건전한 성 태도를 교육함과 동시에 미래의 결혼 생활에도 유익한 실질적인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여대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를 파악하여 여학생들로 하여금 좀더 올바른 성 지식과 건전한 성 태도를 지니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교육 참고 자료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질문지법을 이용한 조사연구로 2001년 6월부터 7월까지 경기지역에 위치한 일개 여자대학에 재학중인 1, 2학년 9개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 모집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1,500부를 배부하여 1,210부를 회수하였다. 회수율은 80.6%이었다.

2. 연구 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이인숙(1994)이 개발한 도구를 인용하여 성 지식에는 생식생리, 피임, 성 생리에 관한 지식을 뜻하는 것으로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합의 점수가 높으면 성 지식이 높은 것으로 보았고 점수가 낮으면 성 지식이 낮은 것으로 보았다. 성 태도 문항은 혼전임신의 책임, 결혼 전 유산, 남성의 혼전 성교, 여성의 혼전 성교, 남성과 여성의 혼외 성교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으로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으면 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임을 뜻한다. 성 경험은 자위행위, 성교, 피임, 성병, 임신, 유산, 강간에 관한 경험을 말한다. 성교육 요구는 대학에서의 성교육 필요여부, 성교육 실시의 적합한 시기 및 실시방법에 관한 4개 문항과 성 지식에 관한 요구로써 남녀의 성 심리, 성 윤리, 생식생리, 성병, 피임, 성 행동, 남녀의 역할, 사랑의 의미, 결혼의 의미, 이성교제의 방법, 배우자 선택 등에 관한 19개 문항에서 각각에 대한 요구 빈도를 말한다.

3. 자료분석

본 연구결과는 spss p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실수와 백분율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 2) 성 지식과 태도는 문항별 분포 및 점수를 산출하였다.
- 3) 성 태도에 따른 성 지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 4) 성 태도와 성 지식간의 상관성을 보기 위해 회귀 분석을 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년은 1학년이 842명(69.6%), 2학년이 368명(30.4%) 이었다. 종교는 기독교가 422명 (34.9%), 천주교 163명 (13.4%), 불교 130명(10.7%) 종교 없음이 466명(38.3%) 이었으며 기타가 29명(2.7%) 등이었다.

출신 교고는 대도시가 680명(55.9%), 중소도시가 452명(37.1%), 농어촌 출신이 77명(7.0%) 이었다.

경제상태는 1,092명(89.7%)이 중산층을 표시하였으며 하위층도 87명(7.8%)이었다.

거주형태는 1,123명(92.3%)이 자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자취나 하숙, 친척집이 84명(6.9%)이었다.

부모님의 생존여부는 양친 생존이 92.3%인 1,111명이었고 편부 15명(1.2%), 편모 86명(7.1%), 양친이 안 계시는 경우가 5명(0.4%) 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704명(57.8%), 중학교 졸업이 285명(23.4%), 초등학교 졸업이 134명(11.0%) 대학교 졸업이 66명(5.4%), 무학이 10명(0.8%), 대학졸업 이상이 5명(0.4%), 무 응답이 5명(0.4%) 이었다<표 1>.

2. 대상자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 실태.

1) 대상자의 성 지식

대상자의 성 지식에서 정답율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 '자위시 더러운 손으로 성기를 만지면 세균의 침입을 가져올 수 있다'에서 86.6%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정답율이 높았던 문항은 '난자는 여성의 난소에서 생성된다'로서 대상자의 82.6%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정답을 하였다.

70% 이상이 정답율을 보인 문항은 폐경과 임신에 관한 문항이었다. 가장 정답율이 낮았던 문항은 '정자는 1회 사정시 1개가 배출된다'에서 7.1%만이 정답을 하였고 '임신기간동안 태아는 난소에서 자란다'는 15.2%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210)

특성	구분	인수(N)	비율 (%)
학년	1학년	842	69.6
	2학년	368	30.4
전공분야	멀티미디어	165	13.6
	컴퓨터정보디자인	189	15.5
	산업환경	130	10.7
	간호	286	23.5
	사회체육	120	9.9
	비서행정	56	4.6
	무역실무	50	3.5
	피부관리	115	9.4
	세무회계	99	8.1
종교	기독교	422	34.9
	천주교	163	13.4
	불교	130	10.7
	종교없음	466	38.3
	기타	29	2.7
출신 고교	대도시	680	55.9
	중 소도시	452	37.1
	농,어촌 출신	77	7.0
거주형태	자택	1123	92.3
	자취, 하숙	50	4.1
	친척	37	3.6
부모님생존여부	양친생존	1111	91.3
	편부	15	1.2
	편모	79	7.1
	양친안계심	5	0.4
어머니학력	고등학교 졸업	704	57.8
	중학교졸업	285	23.4
	초등학교졸업	134	11.0
	대학교졸업	66	5.4
	무학	10	0.8
	대졸이상	5	0.4

<표 2> 대상자의 성 지식에 관한 사항

내 용	(n=1210)		
	그렇다N(%)	아니다	모르겠다
자위행위는 건전한 운동을 통해서 줄일 수 있다	734(60.3)	90(7.4)	391(32.3)
몽정은 허약한 남성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100(8.2)	844(69.4)	270(22.4)
몽정은 신체적으로 해롭다	841(69.1)	92(7.6)	280(23.3)
콘돔을 사용하면 조루중에 걸릴 위험이 높다	128(10.5)	302(24.8)	783(64.7)
난자는 여성의 난소에서 생성된다	1005(82.6)	68(5.6)	132(10.8)
난자는 1달에 1개씩 생성된다	821(67.5)	204(16.8)	183(10.8)
임신기간 태아는 난소에서 자란다	777(63.8)	185(15.2)	246(21.0)
폐경기 이후는 임신이 불가능하다	981(81.1)	83(6.8)	140(12.1)
음경이 자극되어 커지는 것을 사정이라고 한다	512(42.1)	250(20.5)	446(36.4)
정액의 90%이상이 정자다	225(18.5)	369(30.3)	614(50.2)
월경기간동안 성교를 하면 임신이 된다	257(21.1)	644(52.9)	305(26.0)
분만시 아기는 엄마의 요도를 통해서 나온다	739(60.7)	159(13.1)	312(25.2)
정자와 난자는 자궁에서 수정된다	513(42.2)	549(45.1)	147(12.7)
정자는 1회 사정시 1개가 배출된다	975(80.1)	87(7.1)	152(12.2)
성병이 있는 경우는 임신이 안된다	700(57.5)	115(9.4)	393(32.1)
자위시 더러운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것은 세균의 침입이 될 수 있다	1054(86.6)	37(3.0)	121(9.4)
매독균은 인체밖에서도 생존가능하다	202(16.6)	235(19.3)	776(63.8)
먹는 피임약은 난소에서 배란이 되지 않게 하여 임신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776(63.8)	136(11.2)	298(25.0)

가 정답을 하였다. 매독균은 인체 밖에서도 생존이 가능하다'는 19.3%가 '아니다' 라고 응답하여 정답을 하였다.

정답율이 50% 미만으로 나타난 문항은 음경이 자극되어 커지는 것을 사정이라고 한다는 문항과 수정, 분만, 성병과 임신 등에 관해서 이었다<표 2>.

대상자의 영역별 성 지식 점수는 1, 2학년 모두 생식생리에 대한 점수가 높았으며 성병, 성 생리, 피임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년별 차이에서는 2학년이 1학년 보다 전반적인 성 지식 점수가 높게 나왔다<표 3>

<표 3> 대상자의 학년별 영역별 성지식 평점 (n=1210)

내 용	1학년	2학년
생식생리	15.7	17.9
성생리	5.2	5.6
성병	5.5	6.0
피임	1.7	2.0

대상자의 전공별 성 지식 점수는 9개학과 중 간호과가 가장 높았으며 무역실무과, 피부관리과 순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학년, 학과별 모두 생식생리 점수가 가장 높고 피임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게 나왔다<표 4>.

2) 대상자의 성 태도

대상자의 성 태도 응답 분포는 '혼전 임신의 책임은 남성에게 있다'에 대해 31.5%, '결혼 전 유산'에 대해 45.7%, '결혼 후 유산'에 대해 21.1%, '남성의 혼전 성교'에 대해 9.6%, '여성의 혼전 성교'에 대해 9.5%, 남성의 혼외 성교에 대해 4.0% '여성의 혼외 성교'에

<표 4> 대상자의 전공분야별 영역별 성지식 평점 (n=1210)

내 용	멀티미디어	컴퓨터정보 디자인	산업환경	간호	사회체육	비서행정	무역실무	피부관리	세무회계
생식생리	15.8	15.7	14.1	19.3	15.2	14.1	14.1	17.4	15.6
성생리	4.9	5.0	4.5	6.0	4.8	5.1	7.4	5.0	6.0
성병	5.2	5.4	5.0	6.6	4.8	5.1	6.0	5.6	6.0
피임	1.6	1.5	1.6	2.1	1.7	1.6	2.5	1.9	2.1
성지식합	27.5	27.8	25.0	34.1	26.4	26.0	30.6	30.1	29.7

<표 5> 대상자의 성태도 문항별 응답분포 및 평점 표준편차 (n=1210)

내 용	매우찬성	찬성	보통	반대	매우반대	평점	표준편차
이성교제시 임신을 하였을 경우 책임이 남성에게 있다	35(3.7)	338(27.8)	585(48.1)	163(13.4)	68(5.6)	2.27	±.75
결혼전 원하지 않는 임신시 유산을 해도 된다.	115(9.4)	442(36.3)	418(34.3)	165(13.6)	55(4.5)	2.28	±.75
결혼후 원하지 않는 임신시 유산을 해도 된다	39(3.2)	218(17.9)	341(28.0)	429(35.4)	106(8.7)	1.71	±.79
남성들은 결혼전에 성교경험을 가져도 된다	13(1.1)	104(8.5)	412(33.9)	346(28.4)	316(26.0)	1.54	±.66
여성들은 결혼전에 성교경험을 가져도 된다	14(1.2)	101(8.3)	444(36.5)	333(27.4)	306(25.1)	1.56	±.66
남성들은 혼외 성교경험을 하여도 된다	9(0.7)	40(3.3)	228(18.7)	395(32.5)	523(43.0)	1.29	±.52
여성들은 혼외 성교경험을 하여도 된다	6(0.5)	37(3.0)	252(20.7)	389(32.0)	507(41.7)	1.27	±.55

대해 3.5%가 매우 찬성 내지 찬성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혼전 유산'에 대해 가장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고 '여성의 혼외 성교'에 대해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표 5>.

3) 대상자의 성 경험

성 경험 문항에서는 대상자의 94.2%인 1,146명이 응답을 하였고 그중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은 74.6%(855명)이었다. 이성교제 형태로는 손을 잡거나 팔장을 끼는 정도가 37.1%(452명)로 가장 많았고 키스나 애무가 21.3%(259명)을 차지하였다. 이성교제 장소는 카페나 주점 28.3%(341명)로 많았으며 공원 및 야외가 19.5%를 차지하였다.

성문제로 고민을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93.2% (1068명) 이었으며 내용은 이성교제 44.6%(543명), 임신 29.0%(353명)과 성병15%(183명) 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친상간도 3.3%(40명)나 되었다.

고민해결방법으로는 친구나 선배와 의논한다가 48.6%(591명)로 가장 많았고 억제한다가 13.6% (165명), 전문가와 상의한다가 8.5%(104명)로 나타났다<표 6>.

대상자의 성 경험 분포는 전체 대상자의 24%인 292명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성교 7.1%(87명), 자위행위 5.4%(66명), 피임 4.5%(55명), 강간 2.6%(32명), 임신 2.1%(25명), 유산 1.8%(22명), 성병 0.4%(5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 지식과 성병과는 관계가 없었으며 자위행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성 지식에 대해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F=16.16, p< .001) 성 태도에 대한 점수도 비교적

<표 6> 대상자의 성 문제와 관련된 고민과 고민해결 방법 내용 (n=1068)

	내 용	N	%
고민	이성교제	543	44.6
	성욕구	159	13.1
	자위행위	66	5.3
	성적성숙의 정상여부	149	12.2
	직접적인 성관계	173	14.2
	성병	183	15.0
	임신	353	29.0
	근친상간	40	3.3
고민 해결방법	친구나 선배와 의논	591	48.6
	술을 마신다	23	1.9
	스포츠나 오락	68	5.6
	전문서적	78	6.4
	부모와 상의	100	8.2
	전문가와 상의	104	8.5
	자위행위	3	0.2
	억제	165	13.5

*고민은 중복 표시함

*고민 해결 방법은 무응답자 78명 제외

높았다(F=5.23, P< .05). 또한 성교(F=48.07, P< .001), 피임(F=19.50, P< .001), 임신(F=12.02, P<.001), 유산(F=11.70, P< .0001)과 원하지 않은 성교(F=10.37, P< .001)등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성 태도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표 7>.

4) 대상자의 성교육 요구

대학에서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대상자중 98.9%인 1,197명이었다. 성교육 실시방법은 45.5%(545명)가 특강, 18.0%(216명)가 정규학 과목, 학교보건소나 질의응답이 12.2%(149명)순으로

나타났다.

성교육 실시방식은 남녀 혼합이 58.2%(708명), 남 녀 분리가 16.8%(205명)로 나타났다. 성교육 실시 시 기는 대학 1학년이 69.8%(849명)로 많았다. 성 지식 을 습득한 경우에는 중학교 때가 48.9% (595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초등학교가 26.1%(318명) 를 차지하였다.

대상자가 원하는 성교육의 내용으로는 '피임'이 93.5%로 가장 많이 원하였으며 다음으로 남녀 성 심 리, 임신, 성병, 성범죄 예방에 관해서 이었고 가장 원 하지 않은 내용으로는 남녀 생식기관, 동정, 배우자 선 택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8>.

<표 8> 대상자가 원하는 성교육 내용 분포

	내 용	N	%
(n=1197)	남녀 생식기관	509	56.2
	사랑의 의미	595	66.1
	성 윤리	697	76.3
	남녀 성심리	829	88.7
	월경	585	64.4
	동정	526	58.6
	사정	596	65.9
	자위	641	70.4
	임신	822	88.4
	분만	709	77.6
	이성교제방법	599	66.2
	배우자 선택	579	64.2
	결혼의 의미	582	64.2
	남녀의 역할	620	68.4
	피임	866	93.5
	성욕의 처리방법	747	81.4
	성교	727	79.3
성범죄의 예방	784	84.8	
성병	804	87.1	

<표 7> 대상자의 성지식, 성태도와 성경험과의 관계

	내 용	N	(%)	F값	p	자유도
	자위행위	66	(5.4)	성지식	16.16	.001***
				성태도	5.26	.02*
	성교	87	(7.1)	성지식	5.25	.02*
				성태도	48.07	.001***
	피임	55	(4.5)	성지식	7.77	.005**
				성태도	19.5	.001***
	성병	5	(0.4)	성지식	0.18	.66
				성태도	7.66	.006
	강간	32	(2.6)	성지식	0.57	.44
				성태도	10.37	.001***
	임신	25	(2.1)	성지식	3.35	.06
				성태도	12.02	.001**
	유산	22	(1.8)	성지식	2.95	.08
				성태도	11.70	.001***

*P<.05, **P<.01, ***P<.001

3. 대상자의 성 지식과 성 태도와의 관계

성 태도와 성 지식 점수간에는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 학생이 대체적으로 성 지식 점수가 높았으며 남성과 여성의 혼전 성교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 학생이 성 생리(F=8.49, P<0.01)와 생식생리(F=4.38, P<0.01), 성병(F=5.26, P<0.01)에 대한 점수가 높았다. 성 생리에 대해 지식점수가 높은 학생이 결혼 후 유산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에 혼전 임신의 책임을 남성에게 두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도 생식생리에 대한 점수(P<0.001)가 높았다<표 9>

성 태도와 성 지식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성 지식이

높을수록 성 태도는 개방적이었으며 성 지식이 낮을수록 성 태도는 보수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r=.105**)

V. 논 의

성 지식 점수는 전반적으로 낮았으나 전공별 차이는 보건계열이 문과계열 보다 높게 나왔고 학년별 차이는 2학년이 1학년 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 지식 영역 가운데 생식생리에 관한 부분이 점수가 비교적 높았으며 피임 부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김은자(1979)와 이은정(199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대상자에게 가장 부족한 성 지식은 '정자는 1회 사정시 1개가 배출된다'에서 7.1% 만이 정답을 하

<표 9> 대상자의 성 태도와 성 지식간의 상관관계

내 용	구 분	성 생리	생식생리	성 병	피 임
혼전 임신의 책임은 남성	찬성	5.60	17.96	5.92	1.82
	보통	5.17	15.65	5.52	1.82
	반대	5.18	15.59	5.45	1.80
	F값	2.73	14.74***	1.42	0.36
	r값	.073	.190	.077	.005
결혼전 유산	찬성	5.37	16.77	5.70	1.86
	보통	5.36	15.85	5.59	1.77
	반대	5.13	16.46	5.60	1.81
	F값	0.59	5.81	0.17	0.75
	r값	.033	.044	.019	.023
결혼 후 유산	찬성	5.43	16.90	5.88	1.98
	보통	5.36	15.96	5.64	1.83
	반대	5.24	16.32	5.58	1.72
	F값	0.02*	4.28	0.20	0.23
	r값	.035	.028	.054	.076
남성의 혼전성교	찬성	6.60	17.50	6.26	2.13
	보통	5.36 [^]	16.17	5.55	1.90
	반대	5.06	16.33	5.58	1.72
	F값	8.49**	4.38*	5.26*	0.11
	r값	.174	.046	.060	.110
여성의 혼전성교	찬성	6.53	18.02	6.31	2.02
	보통	5.45	16.33	5.66	1.89
	반대	5.01	16.12	5.51	1.74
	F값	4.16*	4.58*	2.43	0.01
	r값	.184	.093	.089	.082
남성의 혼외성교	찬성	6.63	16.86	6.42	2.45
	보통	5.54	15.38	5.70	1.93
	반대	5.20	16.61	5.58	1.76
	F값	2.76	7.39**	1.61	2.14
	r값	.121	-.058	.062	.117
여성의 혼외성교	찬성	6.27	17.80	6.53	2.43
	보통	5.73	15.36	5.82	1.98
	반대	5.15	16.61	5.54	1.74
	F값	0.01	6.82**	0.79	0.67
	r값	.139	-.041	.083	.126

* P<0.5, ** P<0.01, *** P<0.001

-1<r≤1

였고 남자의 사정이나 몽정 등 남성 생식생리에 대해 접수가 낮은 반면에 '난자는 여성의 난소에서 생성된다'는 대상자의 82.6%가 정답을 하였는데 아마도 이것은 대상자가 여학생들 이어서 남자에 대한 생식 생리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피임 부분은 그 지식정도가 낮은 것에 비해 여성의 먹는 피임약에 대한 지식은 비교적 높았으며 이는 이인숙(1994)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성적 노출 가능성이 많은 대학 시기에 필요한 지식으로 혼전 성교와 미혼모 증가 실태를 생각할 때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된다. 성 지식 습득 경로나 고민해결방법은 친구나 선배가 48.6%, 전문서적이나 전문가와 상의가 6.4%와 8.5%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교육의 풍토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보며 이것은 김주연(1993)의 연구결과에 비교하면 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점차 개방적으로 되어 타인과 의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인숙(1994)의 결과와 비교하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학적인 근거없이 오가는 경험담을 통해 얻은 내용이 정확한 지식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성에 대한 문제로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이성교제인 것으로 전체의 44.6%가 고민을 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이 임신으로 29.0%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근친상간으로 고민한 경우도 3.3%나 되었다. 대상자의 성 경험에 있어서 성교 경험을 한 학생은 7.1%이었으며 박영신(1988)의 연구결과 (3.3%)와 비교하면 성교경험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 이인숙(1994)의 결과(12.3%)와 비교하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마도 이것은 지역적인 차이와 학년별 차이에서 온 것으로 생각된다. 성병을 경험한 학생은 0.4%로 김은자(1979)나 이인숙(1994)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성병 감염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AIDS의 확산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의 업태부 관리 강화나 상대방 남성의 콘돔 사용확대나 홍보를 통한 지식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려된다.

특히 성병은 본인 당사자만의 신체적 불 건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님을 교육하여 대학생들 스스로가 올바른 성위생 관념을 지니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위 행위의 경험은 성교 다음으로 5.4%를 차지했는데 이것은 김주연(1993)의 연구에서는 12.8%, (Coleman, 1992)의 연구에서는 33%, 이인숙(1994)의 22.6%에 비하면 낮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여학생들이 자위를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여 그러한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원하지 않은 성교 즉 강간의 경험은 전체 대상자 중 2.6%가 강간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인숙(1994)의 경우(4.4%) 보다는 낮은 숫자이지만 강간이라는 행위가 법적, 사회적, 윤리적 범죄의 성격을 띄고 있음을 생각할 때 지성인이라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의 강간행위는 심각히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 하겠다. 임신의 경우도 2.1%나 차지하고 있어서 피임에 대한 보다 확실한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성 지식을 습득한 시기는 중학교 때가 48.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초등학교가 26.1%로 나타났다.

대학에서의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98.4%나 되어 강현숙(1979)의 95.9%, 이인숙(1994)의 90.5%의 연구에서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성교육 실시 방법으로는 45.5%가 특강, 18.0%가 정규 교과목의 형태로서 대다수의 학생이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원하는 성교육 내용으로서는 대상자 중 93.5%가 피임에 대한 교육을 원하였고 다음으로는 남녀 성심리, 임신, 성병, 성범죄 예방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학생이 '피임'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는 것은 임신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남녀의 성 심리'에 대해 또한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은 많은 학생이 이성에 대한 심리를 정확히 알지 못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성적 노출의 기회를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특강형태의 단편적인 지식 전달이 아닌 정규 교과목으로서 성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진정한 이성교제 및 성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간의 관련성을 비교해 본 결과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 학생이 대체적으로 성 지식 점수가 높았으며 성 생리나 생식생리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경우 남성과 여성의 혼외 성교나 결혼 후 유산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성병을 경험한 적이 있는 학생들이 성 태도에 개방적인 것을 나타냈으나 성 지식과 성병과는 관계가 없었다. 성 지식과 성 태도간의 각 전공별, 학년별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 성에 대한 태도의 경험간의 관련성이나 대상자의 성 심리에 관한 측면을 다루지 못했고 대상자에 있어서도 일개 대학의 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전체 대학생들에게 확대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하지만 대학에서의 성교육은

성병이나 임신, 유산, 강간 등과 같은 원하지 않는 성 경험의 1차적 예방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성인 초기에 있는 대학생들로 하여금 더욱 올바른 성 태도를 지녀 성숙된 인격 형성과 올바른 성생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성교육을 위해 대학에서 성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규적인 교과목 개설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경기지역 일개 대학의 여대생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를 측정된 조사 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2001년 6월부터 7월까지이며 수집된 자료는 1,210부였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 지식 점수는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전공별 차이는 보건의 계열이 문과계열 보다 높게 나왔다. 학년별 차이는 2학년이 1학년 보다 약간 높게 나왔다. 생식생리 대한 점수가 높았고 피임에 대한 점수가 낮았다.

(2) 성 태도에서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던 문항은 '남성의 혼전 성교'와 '여성의 혼전성교' 이었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 문항은 '결혼 전 유산'과 '혼전 임신의 책임' 에 대해서였다.

(3) 성 경험에서는 성교경험이 있는 학생은 7.1%, 자위경험은 5.4%, 피임 4.5%, 강간 2.6%, 임신 2.1%, 유산 1.8%, 성병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4) 대상자중 98.4%가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성교육의 실시 방법으로 특강 형태가 4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정규과목으로 18.0%이었으며 남녀 혼합방식의 성교육이 실시되기를 원하였다. 성교육의 내용으로는 93.5%가 피임에 대한 것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남녀의 성 심리', 임신, 성병, 성범죄 예방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5) 대상자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간의 관계에서는 성 태도에 따른 성 지식 점수의 차이는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지닌 학생이 대체적으로 성 지식 점수가 높았으며

(6) 남성과 여성의 혼외 성교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지닌 학생이 성 생리나 생식생리에 대한 ($F=4.38, P<0.05$)지식 점수가 높았다.

(7) 성 경험에서는 성병을 경험한 적이 있는 학생들이 성 태도에 개방적인 것을 나타냈다. ($F= 7.66, P<.05$)

이상의 결과에서 대학생들의 성 지식 점수는 대체적으로 낮았으며 2학년이나 2학년보다 약간 높았다. 성 태도에 있어서는 문항에 따라 개방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성 지식이 높을수록 남녀 혼전 성교에 대해 개방적이었다. 또한 나이 어린 대학생들에게서 임신, 유산, 성병, 강간 등의 경험은 성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성교육은 기본적인 성 지식의 전달을 통해 학생들의 성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른 적절한 의사결정 능력 및 바람직한 성 태도를 지니게 함으로써 미래의 결혼생활에 있어 긍정적으로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일시적인 특강을 통해서가 아닌 실질적인 정규 교과과정으로 성교육 과목을 개설,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현숙 (1977). 여대생들의 성에 관한 인식 및 태도 조사연구. *경희간호연구지*, 1, 59-68.
- 강현숙 (1979). 남자대학생들의 성에 관한 인식 및 태도 조사연구. *경희간호연구지*, 2, 51-59.
- 강현숙 (1989).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태도와 성 경험의 관계 연구. *최신의학*, 32(2), 120-125.
- 김소야자 (1987). 도시청소년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 조사. *연세 간호학 논집*, 9, 1-12.
- 김영숙 (1981) 일부 사범대학생의 성교육에 대한 태도 조사. *중앙의학*, 41(6), 371-376.
- 김영혜 (1998). 한국 교사들의 성 역할 인지, 성교육 요구 및 성교육 의식정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4(2), 131-146.
- 김은자 (1979). 일부 대학교 남녀학생이 특성에 따른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의 실태와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은 (1992). 일부여대생의 월경전후 불편감, 월경에 대한 태도, 성역할 인식도의 관계. *모자 간호학회지*, 2(1), 55-69.
- 김주연 (1993). 일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 경험에 관한 조사연구. 경희대학교.
- 문옥륜 (1981).
- 박영신 (1988). 일부 사범대학생이 성에 대한 태도와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53(6), 393-413.
- 박형숙, 유인숙 (1986). 간호대학생의 성역할 정체성과 학업성적에 관한 연구. *부산의대학술지*, 26(2).

- 변희재 (1976).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 연구. *최신의학*, 22(3), 120-130.
- 병원신문 (1993). 한국부인회 실태관리 세미나
- 서연옥 (1996). 중년여성의 건강증진 생활방식과 성 역할 특성의 관계. *여성건강학회지*, 2(1).
- 성영자, 정연강 (1984). 남녀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과 상관변인에 관한 분석연구. *중앙의대지*, 9(3), 461-477.
- 안재정 (1983). *비행청소년과 상담*. 한국 기독교 청소년 선교회.
- 윤가현 (1992). *성의 심리학*. 성원사.
- 윤가현 (1994). 성 혁명의 진행과 종말. *지성과 패기*, 9,10월호, 92-95.
- 윤귀임 (1982). *남녀 고교생의 성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자 (1990). 청소년과 성 문제. *대한간호*, 29(5), 5-14.
- 이성희 (1992).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성 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일 (1978). *한국청소년의 성 의식에 관한 사회 정서학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인규 (1984). 일부 도시지역 남녀고교생의 성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의학*, 47(2), 105-114.
- 이은정 (1990). *고교생과 고교생 학부모의 성 지식 및 태도, 성교육 요구시기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이인숙 (1994). *일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철형 (1998). “청소년 성행위에 대한 고찰”, *아동과 성 문제* 제9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학술대회.
- 임능빈역 (1973). *현대심리학 총서*. 익문사.
- 장병림 (1980). *청년심리학*. 법문사.
- 장순복, 최연순, 김혜숙 등 (1992). 미혼 근로 여성의 성문제 분석. *최신의학*, 35(8), 103-112.
- 정동철 (1978). *성:사회적 문제*. 대한불입학회잡지, 5(1), 33-36.
- 전정자 (1976).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중앙의학*, 30(2), 33-36.
- 정진경 (1992). *미래사회를 살아갈 청소년의 성 역할 사회화*. 청소년의 심리학적 이해 한국청소년 연구원.
- 최수일 (1996). *대중매체가 중학생의 성 의식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drian, S. E. (1990). *The effects of formal sexuality education program on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labeled emotionally disturbed*.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Anema, V. M. (1987). *Use or nurse of contraceptives by sexually active adolescent females and males*. University of Florida College of Nursing MSN.
- Bem, S. L. (1972). *Psychology looks at sex roles : Where have all the androgynous people gone?* Paper Presented at the UCLA Wymposium on Women.
- Bem, S. L. (1976). Sex-typing and the avoidance of cross-sex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48-54.
- Caprio, F. S. (1952). *The power of sex*. New York: The Citadel Press.
- Cogner, J. J. (1977). *Adolescence and youth psychological development in a changing world*. Harper & Row Publishers.
- Coleman-Kenney, K. R. (1992). *The influence of selected family background variable on the reported sexual attitudes, sexual behavior, and sex education of traditional age college students at two Universities in southeasten Pennsylvania*. RH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 Douglas, K. (1980). The effects of school sex education procedur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J.S.H.*, 12.
- Fishman, J. D. (1990). *Prevalence, impact, and meaning attribution of childhood sexual experiences of undergraduate males (sexual experience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Ford, B. (1980). *Patterns of sex : The mating urge and our sexual future*. New York : St. Martin's Press.
- Goldman, J. R. (1982). *Children's sexual thinking*.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 Grum, S. M. (1991). Setting up a school-based sexual education program. *Nurse Pract.* 16(8), 47-51.
- Jacson, A. E. (1990). *The relationships among knowledge, perceived accessibility and practice of contraception of mexican- American adolescent female(ethnic value system)*. Texas Woman's University.
- Larossa V. S. (1988). *College dating: Behaviors and current sexual norms as a function of selected characteristics*. University of Pennsylvania.
- Marie, F., Anne, L. V., Klerman et al. (1972). Pregnancy and Special education. *A.J.P.H.*, 12, 1612-1619.
- Lloyde, M. A. (1985). *Adolescence*. Harper & Row Publishers.
- Mims, F. H., Brown, L., Lubow, R. (1976). Human sexuality course evaluation. *N.R.* 25(3).
- Moody, L. P. (1990). *An analysis of the relation- ships between selected situational and demographic variables influencing contra- ceptive use and pregnancy risk among adolescents*.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Schwartz, I. M. (1991). *Affective reactions of American and Swedish women to their first premarital coitus: A cross-cultural comparison (sexual intercourse)*. New York. University.
- Zelnik, M., Kim, Y. (1982). Sex education and its association with teenage sexual activity, pregnancy and contraceptive use.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14(177), 123-126.

- Abstract -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Experience in Sex and the Needs of Sex Education of One Women's College

Lee, Hea S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the knowledge, attitude, experience in sex and the needs of sex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in order to provide basix sex education information for this study, the questionnaires were given to 1,210 women's students in K college of Inchon and collected during the period from June to July, 2001.

These results were analyzed statistically by means of frequency, percentage, t-test, ANOVA and regression test.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1. The level of knowledge related to sex was relatively low.

The difference of grade was 2nd. grade somewhat higher than 1st. grade and major of public science higher than literature.

The scores related to sexual attitude, 45.7% of the respondent answered 'strongly agree' and 'agree' with abortion before marriage, 31.5% of the respondent answered 'strongly agree' or 'agree' with male's responsibility for premarital pregnancy.

2. To solve sexual problems, 48.0% of the respondents intended to consult their friends, 8.5% of the respondents intended to consult expert.

3. The sequence of sexual experience were 7.1% genital coitus, 5.4% masturbation, 4.5% contraceptive, 0.4% venereal disease, 2.6% rape, 2.1% pregnancy.

4. 98.4% of the respondents agreed there

* Department of Nursing, Kyungin Women's College

was a need for sex education in the college and wanted to acquire information through 45.5% special lecture, 18.0% regular curriculum, within the content of sex education, needs in order to priority are; contraceptive, sexual psychology, pregnancy, venereal disease, sexual morality etc.

5. Regarding sexual knowledg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grade or major and relationship between sexual attitude and

knowledge, respondents who answered 'agree' with premarital coitus had more knowledge of sexual physiology & psychology.

6. Regarding relationships between sexual experiences and knowledge, respondents who had experienced venereal disease.

Key words :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sexual experience, sex education